

특집

경찰대학 폐지,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 장기적 조직발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

우수한 자질을 갖춘 고급의 두뇌인력을 선발, 교육시켜 정예 경찰관으로 배출하고, 총경, 경정, 경감급의 경찰의 직무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경찰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 온 경찰대학이 최근 조직내 승진인사의 적체, 특히 시비, 시대상황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존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의 한 국회의원까지 경찰대학 폐지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찰대학 폐지론자의 주장

이들은 먼저, 경찰대학 졸업자들이 인사적체 등 경찰조직 내부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경대 졸업생들의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하위직 경찰관들의 경위 승진 적체 요인, 경찰대 출신의 폐쇄성·비타성으로 조직내 위화감 조성, 젊은 경찰대학 출신 간부가 나이 많은 하급자를 지시 감독하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둘째, 공직 취임(무시험 경위 임용 특혜)의 평등권을 위반한 위험 가능성을 들고 있다. 경대졸업생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찰공무원법 제 8조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공직취임 평등권과 기회균등에 저촉되어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병역 특혜 시비이다.

경찰대학 출신들에게 전경대나 기동대 소대장으로 2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경찰공무원법, 병역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등 양립할 수 없는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뿐만아니라 승진시험 근무소요 연수를 계산할 때 전경대 혹은 기동대 근무를 경찰업무 수행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경찰대학생에 대한 국비무상교육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우수경찰 양성을 이유로 경찰대학생에게 4년간 무상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국고낭비이며, 2006년 현재 전국 70여개 일반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된 이상 경찰대학생들에 대한 특혜지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달라진 상황변화이다.

대학 설립 당시에는 대졸 출신이 20% 미만이었으나 지금은 대졸 순경 임직자가 90%를 넘고 있으며, 사관학교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양성하는 대학 중 세무대학은 2001년 2월 28일자로 폐지되어 경찰대학이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경찰대학 존치론자의 주장

그러나 경찰대학 존치론자들은 먼저, 경찰대학 출신자들이 내부 갈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문을 편다.

1) 경대졸업생이 경위 이상 인사적체의 장애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조직이 타 행정부처에 비해 인사적체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나 경찰대학 졸업생 배출과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경찰의 인사적체는 경찰대학이 있기 전부터 있어 왔다는 주장이다. 반면 심각한 경찰인사적체의 근본 원인은 경찰 인력 구조의 불안정성, 즉 안정된 중령이 아닌 불안정한 에펠탑형 인력구조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2)경찰대 출신자의 사조직화 및 요직 독점론에 대해서는 선발과 어려운 교육 훈련과정을 함께 겪은 동기들간의 모임은 어느 조직, 어느 출신을 불문하고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조직화한다며 문제 삼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특혜론 문제이다.

1) 경찰대학생 교육이 예산낭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경찰대학생에게 투입되는 비용은 4년간 1인당 약 2,600만원 정도이며, 우수한 경찰관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국비를 사용하는 것은 '소모성 낭비'가 아닌 '전략적 투자'에 해당한다



◇ 지난 3월 개최되었던 경찰대학 제22기 졸업식 장면.(졸업생들이 씩씩하게 행진하고 있다.)

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대학은 총경 이하의 간부와 각종 실무연수과정으로 연간 7,000명 정도의 경찰관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대학소속으로 치안정책연구소와 수사보안 연구소도 운영하는 부가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병역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서지역 경계근무, 군수시설 경계근무, 또는 집회시위 현장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타 대체근무제도(예:공익근무제도)의 존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3) 졸업후 경위 임용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이 우수한 인재의 조기 유치를 통한 정예 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으로, 때묻지 않은 청년 자원의 성공적 조기 유치가 바로 대학설립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상황변화론에 대해서는 경찰대학 교육의 대체 불가능성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대학이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의해 대체할 수 없는 성격의 특수대학으로서 국가치안업무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을 교

육, 훈련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대학은 일반 대학의 경찰행정학과와는 달리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4학기 체제 구축, 관서실습 등 현장위주의 실습 교육과 아울러 총 56개 경찰학관련 과목의 개설 등 타 대학이 대체할 수 없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실무경험자로 구성된 경찰대학의 현직 교수진, 교통, 현장감식, 마약감식 진술녹화, 사이버 수사교육 등을 위한 전문 실무실습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어 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 사격, 수영 등의 국제화 및 정보화 역량의 구비를 요건으로 하는 한편, 덕성을 갖춘 경찰간부의 양성을 위해 각종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 방안에 대한 논의

한편 경찰대학 폐지론자들은 그 대안으로 ▶ 학부과정을 전면 폐지하고, 남은 재원은 신입 순경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경찰실무위주 교육에 투자하거나, 순경 임직자 중 우수한 자들을

경찰대학 설립 경과 및 졸업생 배출 현황

국립경찰대학은 지난 81년 제 1기생 입학 이래 금년까지 26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전문경찰간부 배출을 위한 최고의 경찰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찰대학의 설립의 필요성은 지난 72년부터 보다 나은 수준의 전문 경찰 간부양성의 필요성 대두와 더불어 치안본부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그후 수많은 인사들의 고뇌를 거쳐 지난 79년 경찰대학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교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79년 이 경찰대학 설치법안이 내부위원회에 회부 되었을 때 유능한 인재를 뽑아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경찰대학 설립 취지에 대해 당시 위원들의 심의내용을 보면 경찰대학의 설치 필요성에는 여야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제 1차 내부위원회(79. 11.17)회의록을 보면 구자춘 내무부 장관의 법안 제안설명에 대해 이필용 전문위원은 『오늘날 국민의 지식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을뿐더러 범죄양상이 점차 흉악화, 기동화 지능화하고 있으며, 각종 치안수요가 격증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의 자질향상과 정예 경찰간부의 배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때이므로 이 법 제정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밝혔고, 제 2차 내무위 회의(79.11.23)에서

도 김수한 위원이 『경찰 행정을 주도해 나갈 주체성이 있고, 혁신적이고 능력과 사명감이 고도로 함양된 이러한 경찰간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우수한 학생들이 경찰간부가 되기를 지원하고 사명감에 불타서 경찰에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대한 보수체 계리다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장차 경찰에 들어 온 것을 보람 있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대학 졸업생은 지난 81년에 입학한 제 17기생이 지난 85년 처음 배출된 이래 지난 3월 22일 제 22기생까지 졸업함으로써 총 2,525명이 배출된 가운데 퇴직한 184명을 제외한 2,341명(전체경찰관 95,589명중 2.4%, 경위이상 경찰관 20,675명중 11.3%에 해당하며, 경무관 2, 총경 100, 경정 412, 경감 818, 경위 1,009명)이 조직 각 분야에서 중간 관리 및 책임자로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방 이후 국민들이 경찰 조직에 대해 가졌던 부정부패, 부조리, 자질 미달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행정능력, 국민의 신뢰도, 치안서비스 만족도 등을 한차원 끌어 올려 신뢰받는 경찰상 구축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 받고 있다.

선발하여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재교육하는 경찰 관리자 양성기관 또는 경찰대학원과 같은 경찰학 연구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 ▶ 경대졸업생의 임용계급을 하향 조정하여 순경 임용 후 경위까지 일정기간 경과후 자동 승진, 혹은 자동 경위 임용 대신 국립사범대학 교수 임용시험과 같이 경찰고시를 치르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방안 ▶ 경찰대학 입학 정원을 간부 후보생과 같이 50명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70명은 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고교 졸업자만 100% 선발하는 대신 신입생의 절반인 60명을 현직 순경, 경장, 경사 중에서 선발하는 방안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경찰대학 존치론자들은 폐지론자들이 주장인 ▶ 임용계급을 하향조정해 일선경험을 부여하자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시행할 경우 우수한 인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 현직 경찰관 중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여 경찰대학에 편입시켜 경위로 임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 제도도 현직 경찰관이 응시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며, 순경부터 경장, 경정에서 경사까지의 승진 소요 최소 근무년수는 각각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으며, 특별승진의 경우는 최저 기한의 제한마저 없어 우수한 순경 임직자의 고속승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수뇌부의 방향

일각에서 경찰대 폐지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택순 경찰청장은 경찰대를 존속 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6년간 경찰대학을 운영해 본 결과 경찰대는 다수의 양질의 경찰 인적자원을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획득하기 위한 가장 옳은 방법이었다』면서 『경찰대를 존속, 발전시키는데 의의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어느 조직이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대안 없이 경찰대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다만 『각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이미 여러 개가 생겨나는 등 환경이 변화된 만큼 경찰대 유지를 전제로 새로운 발전상을 모색할 때가 됐다』면서, 이를 위해 경찰 내부에 경찰대의 발전·개혁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실무 작업에 착수해 내년 7월까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경찰대 개혁안을 제시할 뜻을 밝히고 있다.

경찰대학 폐지문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4%가 경찰대학 폐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대학 출신의 경찰 조직에 대한 기여도 청렴도, 공정한 업무처리, 친절성 향상, 자질 향상, 검찰의 부당한 수사 간섭 거부 등 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대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때묻지 않은 우수한 청년 경찰을 조기에 국가가 유지하는 적극적인 정책판단에 깊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조직이 변화야 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도 공통된 요청으로서 경찰대학 개혁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경찰대학의 폐지보다는 발전적 개혁 방향 쪽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장기적 경찰발전 뿐만아니라 더 나은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위해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한 후 보다 신중한 결론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2007학년도 전기 범죄학 석사 과정 신입생 모집 (야간·석사 4학기 과정)

1. 모집전공 및 인원

범죄학과 : 범죄학전공 00명 (범죄수사분야, 범죄심리분야, 정보)

2.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원서교부	2006. 10. 30(월)~11. 16(목)	• 본교 정문 수위실, 본 대학원 교학과 또는 홈페이지 내려받기
원서접수	2006. 10. 30(월)~11. 16(목) (월/화/목 09:00~20:00) (수/금 09:00~17:30)	• 본 대학원 교학과 (한울관 214호) •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전자우편접수(e-mail : skkyo@kw.ac.kr) • 토요일·일요일 휴무
전형일시	2006. 11. 18(토) 14:00	• 면접장소는 추후 별도공지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다. 졸업학과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3.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나. 디지털 대학 및 사이버 대학 학위 취득자

다.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학위 취득자

라.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자

마. 외국 대학에서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부(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반경합판 사진(3cm x 4cm) 4매.

마.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 등본 1부.

사. 전형료 50,000원.

5. 관련 자격증 소개

▶ 마약지도사

※ (관련과목 이수시 학과에 관계없이) 레크레이션지도사 1급, 예술심리치료사 및 심리상담사,

가족치유상담사, 노인교육사, 청소년지도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취득 가능

6. 수업연한

▶ 4학기, 주 2회 수업(화·토)

7. 특전

가. 타 전공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나. 교육과정을 통해 심리치료가 이루어짐.

다. 각 전공별 다양한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라. 교수·학생 상호간 돈독한 관계에서 학문연구와 지도 협력관계 형성.

마. 공무원, 군장교, 초·중·고 교사, 사립학교 교직원, 중견기업 및 국영기업체 임원(과장급 이상),

종교기관의 중요 직분자 및 성직자, 사회복지시설장은 등록금 20% 감면 혜택이 있음.

바. 이론보다 현장중심, 전문능력 중심 교육

사. 병역 미필자는 졸업시 까지 병역연기를 받을 수 있음.

아. 졸업 후 본교 박사학위과정 지원 가능.

자. 사회유명인사 및 특정분야 교수들의 특강 실시.

8. 기타 모집학과

가. 행정관리학과 : 행정관리전공

나.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전공 · 청소년지도복지전공

다. 심리치료학과 : 심리치료전공 · 심리전략전공

※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는 범죄학과와 동일

※ 본 대학원은 학·군체대학으로서 군간부가 절차에 의하여 입학할시 등록금 50% 감면 혜택이 주어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복지대학원 교학과로 문의 및 홈페이지 참고 바람

주소 : (139- 7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 1, 정보복지대학원 교학과 TEL : (02)940- 5411, 940-5412 FAX : (02)940- 5413 http://sw.kw.ac.kr